로컬플러스

익산서 중앙지구대 자살기도자 구조

익산경찰서(서장 김성중) 중앙지구대에서는, 지난 13일 새벽 모현동 한 아파트에서 새벽 모현동 한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기도한 남성을 구조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당일 새벽 "난간에 사람이 매달려 죽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히 현장 출동하여 보니 아파트 난간에 매달린 한 남성이 죽는다고 소리치고 있었고, 위급한 상황으로 현장 출동한 경위 박우주 등 4명의 경찰관들이 10여분이상 끈질기게 설득하여 문을 개방하도록 하여 내부로 진입했다.

자살 기도자는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우울증이 있어 정신과 약을 복용중이고 가족과 떨어져 혼자 거주 중 3일 동안 약을 복용하지 않은 채 잠을 자지 않고 생활하여 극도의 불안증상이 보이고 있었다.

출동 경찰관들은 불안해하는 대상자를 보고 추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원대병원 정신과 의사와 상담 후 강제입원조치를 결정하여 완강히 거부하는 대상자를 입원 조치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과태료 특별 징수기간 운영

군산시는 이달 말까지 법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하고 강력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8월말 현재 차량 관련 과태료 부과액 18억원 중 징수액은 8억4천만원으로 징수율이 46.7%에 그치고 있어 자동차 관련 법질서 과태료 징수율이 도내 하위권에 머무는 실정이다.

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납부최고서와 자동차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하고, 각종 채권압류 예고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시는 예고기간 경과 후에는 번호판 영치 및 채권압류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행복한 부모·자녀 아카데미'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행복한 부모·자녀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행복한 부모·자녀 아카데미'는 결혼 10년 미만 부부와 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10월 8일과 12일, 15일 총 3회에 걸쳐 무료로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녀와의 올바른 소통법과 부부간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부부교육을 진행하며, 자녀와 함께 공예체험, 창의 요리, 빼빼로 만들기 등 문화프로그램과 자녀 돌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프로그램을 통해 부부관계를 강화하고 가정 내 부모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자녀양육의 해법을 제시해 가족기능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은 오는 30일까지 홈페이지(gunsanfc.familynet.or.kr)를 통해 신청가은 하며, 15가정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지역 연휴 교통·강력사고 감소

군산경찰서는 추석연휴 기간동안 군산지역에서 총 1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33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 발생한 교통사고 27건(사망 1명, 부상 52명)에 비해 34% 감소한 수치이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중 교통법규위반은 음주운전 15건, 신호위반 12건, 난폭운전 5건 등이다.

5대범죄 발생은 전년대비 132건에서 64건으로 51.5% 감소했다.

이는 지난 5부터 18까지 추석명절 특별방범활동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군산경찰은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일일 평균 교통경찰 10명, 지역경찰 48명, 상설중대 30명, 순찰차, 싸이카 30대를 동원해 혼잡구간 27개소에 대해 교통관리를 추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현안사업 추진에 소모적인 논쟁 중단돼야

예술의전당 신축 등 예산낭비 논란 있었으나 제 몫 다해

군산시가 지난 몇 년간 추진한 사업에 대해 예산낭비 등의 논란과 우려가 높았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제 몫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가 추진하는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발목잡기 식 투쟁이나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힘을 보태야 한다는 여론이다.

4년 전 예술의 전당 신축의 경우 기존 시민문화회관이 있다며 그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큰 규모에 대해 예산낭비라는 우려가 높았다.

하지만 개관 3년이 지난 현재 예술의 전당은 다양한 공연을 펼치며 군산시민에게 문화공연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군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술의 전당은 2013년 5월 개관 이후 2016년 6월까지 총 886건의 공연과 전시를 진행했으며 56만680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2014년 64%에 불과했던 대관율은 지난 6월 현재 65%로 올라섰고, 올해 말까지 7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예술의 전당은 군산시민의 사랑과 관심 속에 문화갈증을 해소시키고 문화생활을 선도하는 랜드마크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7월 개장한 소룡동 야외수영장도 건축 당시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소요예산에 비해 편의시설과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올 여름 야외수영장은 총 6만5960여명, 하루 평균 1436명의 이용객이 방문하면서 시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으며, 이를 통해 25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도 함께 거뒀다.

편의시설과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군산시는 시설물 보완을 통해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산북동에 거주하는 시민 박모(44·여)씨는 "어린이 행복도시를 추구하는 군산시가 야외수영장을 만들어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무더위를 식힐 수 공간 제공으로 어린이를 행복하게 해줬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시가 명품관광 도시로 태어나기 위해 추진 중인 현안사업에 따른 지적과 불편사항들이 곳곳에서 도출되고 있으나, 행정발목잡기는 접어두고 지역발전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목소리다.

시민 김가남(55·남)씨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과 행정에 반발과 반대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불편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앞날을 내다보고 힘을 보태야한다"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건축은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한다는 문 시장의 말처럼 100년 뒤 우리 후손들에게 당당하게 물려줄 수 있는 명품관광도시기반을 조성마련에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희망복지 박람회 23일부터 2일간

군산시가 주최하고 군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협의회가 주관하는 '제8회 군산시 희망복지 박람회'가 23일부터 이틀간 군산 은파호수공원 제2주차장에서 개최된다.

'복지가 답이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복지 박람회는 사회복지기관과 시설·단체들이 직접 준비하고 만들어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 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 복지를 체험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질 계획이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장애인, 여성·가족, 보건·의료, 자원봉사, 사회공헌, 일자리, 지역복지, 공공기관 등 54개 기관에서 57개의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또한 가수 이상우를 초빙해 주옥같은 히트곡을 공연하고 복지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민과 소통하는 '복지토크콘서트' 시간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복지골든벨, 런닝맨미션, 사회복지현장 사진전, 버스킹 공연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진다.

최성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희망복지 박람회는 나눔과 봉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잠재된 복지자원을 발굴하며,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며 즐기는 행복한 박람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추진

의심축 신고·접수·조기대응·방역조치사항 홍보 등 신속대응 체계 가동

오는 11월 북방형 겨울철새의 이동 시작을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익산시는 선제적으로 9월19일부터 내년 5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추진한다.

시는 19일부터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축산과 전 직원이 주말까지 근무를 실시한다.

구제역·AI 의심축 신고 접수와 조기대응 조치, 방역조치사항 홍보 등 신속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또한 구제역·AI 예방 및 긴장감 조성을 위해 축산농가에 매주 차단방역 홍보 SMS를 발송할 예정이다.

작년 구제역 청정지역 사수에 성공한 익산시는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을 11월중에 실시한다.

올해도 구제역 재발 가능성이 큰 만큼 그동안 예방접종에 소극적이었던 농가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구제역 발생대비, 초동방역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오는 9월29일 오후 구제역 현장방역 가상훈련(CPX)을 실시한다.

시는 많은 축산농가가 참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축산 단체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그동안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되었을 때 가장 큰 전파요인이 되었던 축산차량에 950여대에 GPS 장착 및 운영 실태를 지속 점검해 질병 발생 시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정헌율 시장은 "구제역과 AI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소독과 예방백신 접종이 최선"이라며 "구제역 청정지역 사수는 물론 AI가 발생하지 않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원광대병원, 한-몽 서울 프로젝트 수행 병원 선정

원광대학교병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2016 한-몽 서울 프로젝트 수행 병원으로 선정됐다.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초석 역할을 하고 있는 외국 의료인력 무상연수 사업인 2016 한-몽 서울 프로젝트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진흥원이 시행하는 사업이다.

2016 한-몽 서울프로젝트에는 원광대병원 외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조선대병원이 선정 됐으며 오는 9월 30일 연수생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8주간의 연수가 실시된다.

원광대병원은 지난 2012년 본 프로젝트 수행 병원으로 처음 선정 된 후 올해까지 6년 연속 사업 수행 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원광대병원이 그동안 수행해 왔던 해외 의료 진출 사업 성과와 몽골, 러시아, 중국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국가들과의 의료 협력 노력들이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그동안 원광대병원에서 39명의 몽골의사들이 의료연수를 받았고 올해에는 마취통증의학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위장관외과 등 4개 진료과에서 10명의 몽골의사들이 연수를 받게 된다.

몽골 의료 인력들은 연수 기간 동안 원광대병원의 선진의료 기술 습득은 물론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 활동 기회도 갖게 돼 향후 한-몽 의료의 가교 역할들을 기대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한편 원광대병원은 본 사업뿐만 아니라 몽골 보건부와의 자체 협약에 따라 다양한 직종의 몽골 의료 인력들이 연수를 받고 돌아가 한국 선진 의료 전파와 한-몽 친선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철 원광대학교병원 국제진료지원센터장은 "본원은 몽골의 국가기관 및 많은 의료기관들과 의료 협력관계 뿐만 아니라 의료 기술 지원, 검진센터 건립, 몽골의사 동문의 밤 행사, 의료봉사 활동 등 해외 의료 진출을 위한 유대관계를 공고히 해 왔다"고 밝히고 "한국 의료의 해외 진출을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우리가 먹는 것들은 어디서 왔을까?'

군산새만금아카데미, '글 쓰는 요리사' 박찬일 쉐프 초청 강연

군산시는 내일 오후 2시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글 쓰는 요리사로 유명한 박찬일 쉐프를 초청, '우리가 먹는 것들은 어디서 왔을까(국수와 한식의 세계사)'란 주제로 명사 무료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특강은 새만금아카데미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 하나로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요리연구가이자 푸드칼럼니스트 박찬일 쉐프는 홍대 '로칸다 몽로' 쉐프로서, 로컬푸드 개념을 양식당에 최초로 적용하며 재료의 원산지를 꼼꼼히 밝히는 방법을 처음 쓴 로컬푸드 예찬 요리사로 우리 땅에서 나는 재료를 가지고 만든 이탈리아 음식으로 유명하다.

박찬일 쉐프는 다양한 언론매체에 칼럼을 쓰는 등 글 쓰는 요리사로도 유명하며, 관공서, 기업체 등에서의 강연과 tvN 수요미식회 등 각종 방송에 출연하고 있다.

저서로는 '박찬일의 파스타 이야기', '뜨거운 한입', '추억의 절반은 맛이다', '백년식당', '지중해 태양의 요리사', '소년이여, 요리하라', '될 수 있다! 요리사' 등을 출간했다.

진성봉 인재양성과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신선하고 건강한 가까운 먹거리인 한식과 국수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들을 초빙해 평생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창의인재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만금아카데미 다음 강좌는 정호승 시인을 초청해 '내 인생에 힘이 되어주는 시'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19일 오후 2시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인재양성과(☎063-454-2600)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정헌율 익산시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방문

정헌율 익산시장은 19일 지역 섬유산업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산업 육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기관인 서울 소재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방문했다.

익산지역 향토산업인 섬유산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산업 육성사업'은 익산시와 전라북도의 역점사업이다.

지난 4월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KISTEP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산업 육성사업'은 고기능 안전보호복 등 안전보호융복합제품의 기술개발 및 평가인증 기반을 익산에 구축하여 섬유산업의 세계시장 확대와 신성장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최종결과는 11월에 도출될 예정이다.

이날 정헌율 시장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박영아 원장 등과 면담을 했다.

정 시장은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산업 육성사업은 익산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참체일로를 걷고 있는 섬유산업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며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대응투자 등 익산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강한의지를 보였다.

/익산=장양원기자

주얼팰리스 보석대축제 10월 26일 개막

진귀하고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보석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2016 주얼팰리스 보석대축제가 익산시 왕궁면에 위치한 주얼팰리스에서 개막한다.

(사)주얼팰리스협의회(회장 정춘호)가 주최하는 2016 주얼팰리스 보석대축제는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12일간 열린다.

주얼팰리스에 입점한 60여개 업체의 화려한 보석들과 보석 제품을 30% 특별 할인(24k, 다이아몬드 제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보석 리세팅, 보석가공 시연 및 체험 등 다양한 보석 체험행사가 마련된다.

특히 이번 보석대축제는 익산의 대표 축제인 '제13회 익산천만송이 국화축제'와 전라북도 대표관광지인 익산 보석테마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블링블링 주얼리 페스티발'과 함께 개최돼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다양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경험할 수 있다.

/익산=장양원기자